



회의주의

욥기를 중심으로

성인경

저는 평생 대학생 청년들을 가르치고 전도하면서 살았는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의심이 많은 청년 대학생들도 있었습니다. M(미국 여자): “제 남자 친구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K(어느 겨울 눈 오는 날 힘없는 걸음으로 라브리의 문을 두드린 한 대학원생): “나는 어릴 때는 성경을 다 믿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쯤부터 성경의 이적 기사를 믿지 못하겠더니, 이제는 성경의 이적 기사를 하나도 믿을 수 없습니다.” S(세월호 ckatk): 2014년 4월에 생긴 진도 여객선 참사는 비극 중에 비극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는 이번 참사에 직접 관계된 사람들만 아니라 온 국민의 마음에 분노와 실망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천하보다 귀한 수백 명이 목숨을 잃었고, 소비 위축으로 나라 경제에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진도 앞바다가 “통곡의 바다”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는 부활절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슴과 영혼에서 기쁨과 웃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정부와 해경과 같은 조직이 안전사고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 노출된 것입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국가적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 속에 깊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두 가지 근본적이고 영적이고 철학적인 질문입니다. 첫째는 ‘우리 민족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무 까닭 없이 신은 고난을 허락하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과 아들 딸 10명을 잃고 황망한 나날을 보낸 구약의 욥(Job)이란 사람의 질문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2014년의 잔인한 봄을 사는 모든 한국인들의 질문이나 극도의 고난을 당한 욥의 질문이 같은 것이라는 점이 참으로 묘합니다.

J(동방의 의인이라고 소문난 사람): 그의 의심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들(악인들)의 집은 평안하여 아무 걱정이 없고,...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잘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의 자식들은 양 떼 같이 잘도 크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도 잘 추는구나. 그들은 기타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도 불며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구나.”(욥기 21:8-13을 의역함) 그런데 의인들은 왜 “이유 없이” 혹은 “까닭 없이” 병이 걸리고 집이 망하고 벌을 받고 있는가? “그가(하나님이)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욥기 9:17-18)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여러분 중에는 아마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본 사람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왜 세상에는 이렇게 고통과 병과 악이 득실거릴까?”, “왜 내가 급할 때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까?” 이렇게 의심에 의심이 꼬리를 물거나, 질문에 질문이 끊이지 않는 신앙적인 병이나 철학적인 고민에 빠진 것을 “회의주의(懷疑主義, skepticism)”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회의주의에 빠진 대표적인 인물이었다던 욥(Job)이라는 사람을 공부하면서, 과연 그의 의심은 어떤 것이었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욥의 두 자기 근본적인 의심

(1) 이 세상의 무질서와 악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욥은 이 세상의 무질서와 부패 그리고 악이 들끓고 있는 것을 직시했습니다. 그리고는 만약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런 것들을 왜 그대로 두는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12장, 2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욥기 12:6) “...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욥기 21:6-7)

욥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사는 것을 볼 때, 만약 ‘보응의 법칙’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세상이라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악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욥기 21:8-13)

욥의 질문과 의심의 핵심은 이런 것입니다. ‘강도들은 잘 사는데 왜 의인들은 힘들게 사는가?’ ‘악인들은 잘 살고 장수하는데, 의인들은 어렵게 살고 일찍 죽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무질서하고 정의가 사라지고 부패한 이런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과연 그 분이 계시다면 왜 침묵 하시는가?’ ‘악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왜 의인도 고난을 받는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실존적이고 인식론적인 질문을 해 보셨지요? 대답을 찾았습니까?

(2) 하나님은 이유 없이 벌을 내리시는 불공평한 분이 아닌가? 욥의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비도덕성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의 도덕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평은 9장에 적나라하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욥기 9:17-18에서, 욥은 자신이 “이유 없이” 혹은 “까닭 없이” 벌을 받고 있다고 불평합니다.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 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욥은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면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면 누구냐?”(욥기 9:19-24)

욥은 자기가 아는 한, 하나님은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그 분의 판단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혹은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라는 말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분인지는 몰라도 정당한 재판관처럼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나님이 정당한 재판관이라면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못하고 악인들을 의인들과 똑 같이 멸망시킬 수는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재판관의 도덕성은 공평성이 살아있을 때 지켜지는데, ‘공평성을 잃은 재판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의심과 그 질문은 수 만 가지이지만, 요약하면 크게 두 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첫째는 ‘악한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선한 사람들이 가난하고 고생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즉 ‘왜 세상이 이렇게 무질서하고 악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둘째는 ‘도대체 이런 악하고 무질서한 세상에 대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사람들을 그냥 두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도덕적이고 정의로우시며 공평하신가?’라는 질문입니다. 알고 보면 구약의 철학자로 통하는 동방 사람 욥이 제기한 회의적인 질문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무질서한 세계(disorderliness of the world)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비도덕성(viciousness of God)에 관한 회의주의입니다.”¹⁾

2. 욥기의 5가지 고통스러운 위로들

의심과 회의에 빠진 욥을 도우려고 애쓴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욥의 친구들의 대답은 대단한 말들이었으나 한 마디로 말하면 “보응의 법칙”이었습니다. ‘보응의 법칙(the measure for measure principle)’²⁾이란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은 말로 구호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네가 의롭다면 지금과 같은 고난이 찾아왔을 리가 없을 것이다.” “네가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네가 우리들에게 숨기고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너의 모든 불행과 고난의 원인은 네 죄다.”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욥의 네 친구들이 말한 ‘보응의 법칙’은 다 같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라브리에서 욥기를 연구한 바가 있는 김현우씨의 분석을 빌리면 “욥의 친구들의 대답과 공격은 ‘보응의 법칙’ 혹은 ‘신정

1)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22-123.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을 찾고 있던 때에 현창학 교수의 책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각주를 일일이 달지 못했지만, 여러 석학들의 통찰이나 해석도 그 분의 책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지면으로 밝힙니다.

2) ‘보응의 법칙’은 치밀한 ‘인과율’이므로 매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성격 때문에 인류 역사상 가장 설득력이 있는 논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보응의 법칙’은 숨 막힐 정도로 냉혹하고 싸늘하고 철저하고 치밀한 그물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빠져 나갈 수 없다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응의 법칙’ 그 근저에는 신정론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신정론(神正論, theodicy, theos(신) + diky(정의)이라는 것은 악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호신술(護神論)이며 하나님의 정의를 변호하려는 철학적 논리입니다. 신정론에는 두 가지 딜레마가 있습니다. 1)만약 하나님이 정의로우시다면 그는 무능하다(If God is just, He is impotent), 2)반대로 만약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의롭지 못하다(If God is potent, He is not just). 즉 ‘만약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동시에 전능하시다면 의인에게 고난이 닥치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것입니다. 루이스가 그것을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그는 자신들의 피조물들이 완벽한 행복을 누리도록 만드셨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행복하지 않다. 따라서 하나님은 두 가지 중 하나가 결여되었거나, 둘 다 결여된 존재다.”(C. S. Lewis)

론'으로 고지식하게 욱을 밀어 붙이는 데는 별 차이가 없었으나, 응보의 법칙을 설명하는 방법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네 사람의 잘못된 접근 방법이 어떻게 다른지 그 차이를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1 경험주의/너도 한 번 나처럼 체험해 보라

데만 사람 엘리바스(Eliphaz the Temanite)는 경험적인 사람인데, 체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 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의 털이 주뻗하였느니라... 그 때에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욥기 4: 12-17)

그는 “나 같으면.....하리라.”(욥기 5:8)라는 말을 즐겨 쓰며, 생활 속의 경험 중심적인 책망을 하는데(5: 27), 그의 경험주의적인 지혜로 볼 때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롭거나 깨끗할 수 없기 때문에”, 원인 모를 고통과 시련조차도 오로지 욱의 개인적인 행위 자체의 잘못에서 온 것이라고 말하는 데는 다를 바가 없으며, 그도 응보의 법칙과 신정론을 둘러서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욥기 4: 6-11)

회의주의에 빠진 사람을 더 화나게 하는 방법은 “왜 너는 나처럼 안 해 보느냐?”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라.”는 말입니다. “나같이 기도도 해보고, 나같이 성경도 읽어보고, 나같이 금식도 해 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통했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음성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환상을 보았다고 다른 사람들도 환상을 볼 수 있으리라고 말하지 마세요. 물론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며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S-2 전통주의/선배들한테 한 수 배워라

수하사람 빌닷(Bildad the Shuhite)은 전통과 습관을 중요시하는 사람인데, 과거의 전통을 내세워서 욱을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우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지리니...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욥기 8:8-22)

빌닷도 전통을 내세워 응보의 법칙을 주장하는 것은 마찬가지로인데, “조상들이 깨달은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망하고, 순전한 사람은 버리지 않고, 악한 자는 붙들어주시지 않는다.”고 말하며, “하나님은 화평과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만 죄에는 무서운 분”이라고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나 악한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도 응보의 법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의심에 빠진 사람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들은 하나같이 “너무나 지당한 말씀”이거나 “옳은 말씀”이지만 당사자에게는 “헛소리”로 들릴 때가 많습니다. “너는 지금 시험에 든 것 같구

나. 기도를 좀 더 해 봐.” “너 아직 회개 하지 않은 것이 있을지 몰라. 회개해.” “하나님이 너를 크게 들어서 쓰시려는가 봐. 조금만 더 참아.” 이런 말들은 매우 좋은 말들이지만 회의주의를 극복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 되는, 즉 전통이나 역사나 습관적인 말들입니다.

S-3 율법주의/율법에 비추어 흠이 없나 보라

나아마 사람 소발(Zophar the Naamathite)은 교리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는데, “네 말에 의하면 내 도는 정결하고 나는 주께서 보시기에 깨끗하다 하는구나. For you say, My doctrine is pure, and I am clean in God's eyes.”(욥기 11: 4, ESV)라는 말에서 잘 나타나는 것처럼, 이 사람은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사람같이 보이나 사랑이 없는 매우 직선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11: 7-20) 이 사람의 주장은 한 마디로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 즉 악자필멸(惡者必滅)”입니다.

소발은 처음에는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네가 반드시 흠 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욥기 11:14-15)라는 말을 할 때까지는 해도 욥에게 회개의 필요성을 역설했으나, 그의 말대로 “나중에는 조금의 동정심도 갖지 않고”, “병과 재난과 모든 고통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욥기 20:29)며 냉정한 응보의 법칙을 선언하고 맙니다.

특히 감정에 상처를 받아 회의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율법주의자나 교리주의자입니다. 지금 회의주의자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말 한마디”이거나 “커피 한 잔”인데, 성경을 갖다 대거나 교리를 들먹이는 사람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율법과 교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나 밥 한 그릇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은 없이 교리나 율법을 들먹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S-4 논리주의/너도 논리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다

부스 사람 엘리후(Elihu son of Barakel the Buzite)는 다른 친구들이 갖지 못한 좋은 태도, 즉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욥기 32:11-12)라는 말을 볼 때 고통 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신중한 사람이며, 또한 “그가 내게 자기 이론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니 나도 당신들의 이론(arguments)으로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매우 치밀한 이론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욥이 스스로 “순전하여 불의가 없다.”(욥기 33:9-12)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말하며, 욥이 회개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데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욥기 34:31-32)라고 말하라고 하는 것은, 그도 어느 누구보다 ‘범죄에는 진노’라는 ‘보응의 법칙’을 강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욥기 34:10-12)

신앙적인 회의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은 신중하고 논리가 탄탄하고 매우 지혜

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논리주의자는 아닙니다. 논리주의자는 상대방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기 보다는 종종 자기의 논리에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논리주의자는 상대방의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는 자기의 논리가 옳다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합니다. 이들의 차이점을 김현우 씨가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소발	엘리후
특징	경험을 중시하는 사람: 경험주의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 전통주의	교리와 율법을 중시하는 사람: 율법주의	치밀한 논리가 있는 사람: 논리주의
대표구절	욥기 4:12-17, 5:8-27	욥기 8:8-22	욥기 11:4-20	욥기 32:11-33:12
자주 쓴 말	“나 같으면”	“옛 시대 사람”, “옛 사람”	“네 말에 의하면”, “네 도는”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충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욥의 고통은 개인적인 잘못 때문이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망하고.. 하나님은 악한 자를 불들어주시지 않는다.	병과 재난과 모든 고통은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기업이다.	회개 외에는 달리 길이 없는데도 자기 죄를 뉘우치지 않기 때문에 남은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

S-5 주관주의/나도 내 주장을 좀 말하고 싶다

친구들은 욥을 잘못 짚었지만, 욥은 자기 자신을 잘못 짚었습니다. 그는 자기 주관주의나 자기중심주의에 빠졌습니다. 친구들이 자기의 고난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주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잘난 체를 좀 하기 시작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I also will give my answer; I also will declare my opinion, RSV”(욥기 32:17) 자기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 식으로 한 번 대안을 찾아보겠다고 교만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³⁾

욥이 자기주장을 내세운 대표적인 예는, 죄도 없는 사람에게 까닭 없이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은 “잔인한 신”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욥기 3:23-26; 6:1-3, 7:11-21; 10:1-22; 13:17-28; 16:6-17; 19:1-12; 30:1-31) 그리고 욥은 친구들의 말을 모두 “엉터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중에 압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You whitewash with lies; worthless physicians are you all.”(욥기 13:4) “너희는 모두 고통스러운 위로자로구나.(miserable comforters are you all!”(욥기 16:2)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혹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니라. I would have disdained to put with my sheep dogs.”(욥기 30:1)

주관주의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당당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어느 누구의 설득에도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가진 분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매사에 자신

3)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18, 119. 현창학 교수는 “욥의 친구들에 대한 응수는 크게 네 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다. 그 네 가지는 1)하나님을 향한 탄식, 2)친구들에 대한 질책, 3)자신의 결백 주장, 4)보응의 원리 부정이다.”고 분석했습니다.

만만한 논리와 체험으로 자기만족에 빠져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주관주의에 빠지면 다른 사람들의 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비록 여러분이 자기 한계를 보고도 미친한 입을 손으로 가리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지 모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한계를 보면 입을 가릴 줄 아는 사람이지만 교만한 사람은 바로 같은 소리를 하면서도 입을 가릴 줄을 모르는 놈입니다. 정리하자면, 친구들의 헛소리들만 아니라 자기 교만을 조심해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욥기의 5가지 지혜 중의 지혜

S-6 위대한 계획(에차)을 들어보고 입을 가리라

앞에서 욥이 던진 첫 번째 질문을 기억합니까? 왜 세상에는 악한 놈들은 잘 되고 착한 사람들은 고생하는가와 같은 '무질서한 세계(disorderliness of the world)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욥의 의심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한 마디로 "에차(echa)"라는 말이었습니다. "에차(echa)"라는 말은 '상당', '설계', '계획'이라는 말인데,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난 상당과 설계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세상을 운영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1)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은 자신의 '에차'(상당, 설계, 계획)에 의해 지어졌다고 방어합니다.(욥기 38:2, 42:3) '에차'가 가장 재미있게 사용된 구절은 38:2과 42:3입니다. "네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허튼 소리를 해대며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에차)'을 흠어 놓으려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욥기 38:2, 현대어)"주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내 '계획(에차)'을 가리는 자 그 누구냐고 말입니다.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 함부로 입을 놀려 댔습니다. 주께서 나를 위하여 하시는 놀라운 일을 미처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해했습니다."(욥기 42:3, 현대어)

2) 하나님이 세계를 운영하는 방식도 인간의 인지 능력으로는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으며(불가해, unfathomable)하며, 탐지할 수도 없는 것(불가사이, inscrutable)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아는 것을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계의 기원(욥기 38:4-15), 우주의 섭리(욥기 38:16-40:2), 동물의 생태(욥기 38:39-39:30)에 대해 약간의 파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만 총체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3) 자연의 신비한 현상은 모두 질서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께는 의미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질서의 궤를 이탈한 것 같은 것들도 하나님의 '계획(에차)'에 의한 것입니다. '에차'가 하나의 헤아릴 수 없는(unfathomable) 우산처럼 세계를 감싸고 있는 것이며, 그 우산 밑에서 세계는 완전한 질서의 세계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는,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욕한 것이 부끄러워서 입을 다물고 맙니다. "나는 미천하오니 무엇이랴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두 번 말하였으나 다시는 더 하지도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겠나이다."(욥기 40:4,5) 여러분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줄도 모르고 까불고 하나님을 욕한 적이 있으시죠? 욥은 입만 가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입도 병긋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다 듣고도 입을 다물지 못한다면 무식이 탄로 나는 것 밖에 없습니다.

S-7 경이로운 경륜(미쉬파트)을 듣고 입을 열어라

한때 욥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하나님을 “범죄자”로 취급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범죄자다.”란 말은 ‘하나님은 인간들이 고생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시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거나, ‘하나님이 악을 만든 장본인이라.’는 말일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의 ‘미쉬파트(정의, 경륜)’로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너를 정당화하기 위해 나를 범죄자 취급할 수 있는냐?”, “네가 아무리 때를 쓰고 항변을 해도 나는 악을 만들어 놓고 인간들이 그 속에서 고생하는 것을 은근히 즐기는 ‘악마’도 아니며 범죄자가 아니야.”(욥기 40:8-12)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재미있는 구절은 “네가 낚싯대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뿔 수 있겠느냐? 줄로 그 코를 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썰 수 있겠느냐?... 잡기는커녕 보기만 해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욥기 41:1-11)라는 말입니다. 잘 난채 하는 욥 앞에서 하나님께서 폼을 좀 잡으신 거지요.⁴⁾ 이렇게 자신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폼을 잡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 자신은 ‘범죄자’도 아니고 ‘악마’도 아니며 세계 질서의 주권자이며, 공의(公義)의 집행자이며, 전능자이며, 선한 자라는 것을 증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 욥의 입이 꼭 닫혔을까요, 아니면 입을 벌려졌을까요? 체밋(M. Tsevat)이 적절하게 잘 표현했듯이, 하나님의 이런 접근 방법은 “압도의 교육(education of overwhelming)”⁵⁾인데, 하마와 악어, 혹은 공룡과 같은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자연 섭리 경륜을 듣고 놀라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경이와 경륜을 듣고 욥의 입에서 탄성이 터져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도다.”(things too wonderful for me, NIV, NRSV)(욥기 42:3) 누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신비와 경륜에 압도당하면 찬양과 기도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하나님의 경륜과 능력을 만나고 나서 너무 놀라 저처럼 엎드려 짹짹 빌거나 턱이 빠질 정도로 찬양과 기도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S-8 힘들 때는 울고 화내고 욕하더라도 좀 내버려 두라

이번에 우리는 많이 울기도 했고 화도 냈고 욕도 했습니다. 길을 가다고도 탄식했고, 밥상을 받아 놓고도 탄식했고, 친구를 만나도 탄식했습니다. 실컷 좀 울도록 내버려 둡시다.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며 그런 사람이 슬픔을 빨리 극복합니다. 특히 세월호가 허무하게 가라앉던 그날 밤부터 우리는 대통령과 해경과 선장에게 화도 냈고 험악한 욕설도 많이 퍼부었습니다.

욕설은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싱어송 라이터 이길승씨가 말했듯이, 욕은 친구들 사이

4) 여기에 “하마”와 “악어”로 번역된 “브헤뫓”과 “리브야탄”(40:15-24, 41:1-34)은 “두 괴물”로 통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괴물들 중에 대표 동물로 내세우고는, 바로 그런 무서운 동물들을 굴복 시키고 조종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5) 현창학, 같은 책, 121

나 혹은 친밀한 사람들 끼리나 가족 사이에 허물없이 주고받는 “사랑과 축복 그리고 우정의 압호”입니다. 그리고 욱은 한 사회의 도덕성과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욱은 큰 기대가 무너졌을 때 터져 나오는 비난과 좌절의 한숨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많이 쏟아낸 욱은 조난 신호이기도 합니다. “나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를 제발 도와주세요.” “내말 좀 들어주세요.”라는 마지막 조난 신호(SOS) 말입니다.

옥스퍼드대학교 교수였던 루이스(C. S. Lewis)는 자기 아내를 잃고 난 후에 하나님을 “생체해부자.”라고 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욱은 한 때 하나님을 “잔인한 신”, “범죄자”라고 욱한 사람입니다.(욥기 3:23-26; 6:1-3, 7:11-21; 10:1-22; 13:17-28; 16:6-17; 19:1-12; 30:1-31; 40:8-12)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조난 신호”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욱의 욱 중에 압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돌파리 의사)이니라.”(욥기 13:4)

“너희는 모두 고통스러운 위로자로구나.”(욥기 16:2)

“내 양 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 만하지 못한 자’(혹은 개만도 못한 자)들이니라.”

(욥기 30:1)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욥기 30:8)

S-9 자기주장보다 정직하게 토론하는 법을 배우라

이번에 우리는 얼마나 말, 말, 말이 많은 언어학적 민족인지를 실감했습니다. 고함, 스마트폰 통화, 문자, SNS, 카톡, TV 실시간 보도, 인터뷰, 대책회의, 반대집회, 항의소동 등 말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이번 일로 자기주장이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서로 자기주장이 너무 강하여 구조가 지연된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자기 말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욥기 32:17)는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장이 강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거나 하물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처음에 욱도 친구들이 “악인은 무조건 패망 한다.”와 같은 말을 “거짓말”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욥기 21:34)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는 확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엘리후를 제외한 욱의 세 친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욱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욥기 42:7,8)고 한 것을 보면, 욱의 주장은 어느 정도 상대적 정당성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욱이 한 말이 모두 다 정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 정당성은 절대적 정당성과 다릅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주장이 틀릴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 주장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도 욱의 말을 무조건 옳다고 받아들이시지 않았습니다.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욥기 40:14)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잘못을 회개하면 내가 인정하리라.”는 말입니다. 욱

의 말은 정당성이 있는 것이 많았지만 실수와 오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기주장이 강한 사람은 초월자를 만나지 않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가 초월자인줄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욥은 “정직한 변론자”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자신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분과의 변론을 신청했습니다.(욥기 23:7) “거기서는 정직자(正直者)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 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욥기 23:7)

한제호 박사의 빛나는 통찰력으로 그 해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말은 그가 마침내 인간과의 대화를 단념하고 오직 하나님과의 대화에서만 구원의 소망을 찾으려고 ‘계시의 황무지’에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의 하나님과의 대화 청원의 절정에 도달했음을 보여 준다.”⁶⁾ 그의 해석이 옳다면, 욥은 계시의 황무지에서 친구들과의 논쟁에서는 대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변론하기로 한 것입니다. 문제가 복잡하고 어지러운 때일수록 자기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설득할 수 있도록 정직하게 토론하는 법을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

S-10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조심하자

요즘 많이 들리는 말처럼 “죄 값을 갚도록 해야 한다.”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말에 속지 맙시다. 욥의 나쁜 친구들은 “고난은 죄의 결과 혹은 죄 값”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죄를 지었으면 죄 값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치를 떨 노릇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로마서 2:3)라는 말씀이나, 욥이 고난 중에 찾은 것처럼 ‘죄 값은 있지만 모든 고난은 죄 값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만약 죄 값대로 처벌을 받는다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욥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클라인스(D. J. A. Clines)가 잘 지적한 것처럼, “보응의 원리를 적용하는 방식이 잘못된 것이지 그 원리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⁷⁾라는 것입니다. 즉 ‘보응의 법칙’ 혹은 ‘인과율의 법칙’은 이 세상에 엄연히 존재하는 보편 원칙이지만 그것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지만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므로 보응의 원리를 일괄적이거나 무차별적으로 적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2)보응의 법칙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며, 그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정의와 함께 작동하는 신적 도덕성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응의 법칙을 실행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그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보응의 법칙을 강조하려면 동시에 하나님의 계획과 정의도 같이 강조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은 죄 값을 제대로 묻는다면 죽음이나 사형으로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과 정의를 생각하여 서로 용서받고 용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고난은 죄 값이

6) 한제호,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 p.287

7) 현창학, 구약 지혜서 연구, 118, 119. 체밭(M. Tsevat)이란 사람은 이 세상에는 ‘보응의 원리’가 없는 것처럼 말하거나, 하나님은 도덕이 없는 혹은 ‘도덕과 무관한 분(amoral God)’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도덕을 초월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체밭(M. Tsevat)은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욥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분은 의로우신 신(a just god)이나 불의한 신(an unjust god)도 아닌 그냥 ‘하나님(God)’일 뿐이다.”

다.”는 말도 조심해야 하지만 “죄 값대로 처벌하자.”는 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좋은 때일수록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는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맺는 말씀

2014년 5월 현재 한국 땅에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고, 숨어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분은 우리 곁에 항상 계십니다. 그 분은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우리 곁에 계십니다. 고통이 우리를 삼킬 듯이 덤빌 때에 줄장부나 미성숙한 성도처럼 흔들리며 떨고 서 있지 말고 우리 앞에 서신 대장부 예수님처럼 허리를 묶고 손에 힘을 주고 무릎을 다시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 때의 욥처럼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지 않습니까?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은 ‘무죄한 자의 고난(innocence suffering)’이라고 항변한 적이 있습니다.(욥기 31:33-35, cf. 6:24-30; 23:1-7; 31:1-40) 사실 하나님도 욥이 “의(義)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거듭 말하신 적이 있고(욥기 1:1, 1:8, 2:3), 욥 자신도 “아직도 나의 의가 견재하다.”(욥기 6:29)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무식한 놈인 줄을 모르고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욥기 38:2)

그러나 욥은 이제 진짜 대장부는 어떤 사람인지 알았습니다. 진짜 대장부는 허리를 묶을 줄 아는 겸손한 사람이며(욥기 38:3), 자기가 “작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욥기 40:3-5) 만약 여러분이 진짜 구도자이면 “나는 작습니다.” 혹은 “미천합니다.”(“I am of small account(NRSV)”, “I am unworthy(NIV)”라는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이래 봐도 제법 유명하게 될 놈이다.”고 까부는 놈은 진리를 찾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찾는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놈이 될 것이 뻔합니다.

욥이 얼마나 겸손하고 정직한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은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뵈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기 42:5-6) 전에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회개할 것이 너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장부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귀로만 하나님에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회의주의와 고난 그리고 그것과 둘러싼 여러 가지 질문들을 극복하시겠습니까? 왕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욥이 직면했던 다섯 가지 회의주의의 독을 조심하기 바랍니다. 경험주의, 전통주의, 율법주의, 논리주의, 주관주의는 각각 어느 정도 도움도 되지만, 자칫하면 의심을 더 깊게 만들 수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욥이 발견한 회의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지혜를 기억하시겠습니까?

(2009년에 쓴 것을, 2013년에 총신대신학대학원 특강을 앞두고 수정했고, 2014년 300여명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보며 다시 수정함)